



천주교벤투라성당

VENTURA KOREAN CATHOLIC CHURCH

SANTA BARBARA PASTORAL REGION / ARCHDIOCESE OF LOS ANGELES

본당신부 홍준기 예로니모

평협총회장 설은규 레오날드(805-814-3886)

주소 601 S D St. Oxnard, CA 93030

사무실 805-253-0909

홈페이지 venturakcc.org

이메일 venturakcc@gmail.com

미사시간 안내

주일	금	첫주 목 (성시간)
오전 10시	오전 9시 30분	저녁 7시 30분

연중 제23주일

2 0 2 6

0 9

0 6

주보

입당송 시편 119(118),137,124

주님,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 법규는 바르웁니다. 당신 종에게 자애를 베푸소서.

제1독서 예제키엘 33,7-9

화답송 시편 95(94),1-2,6-7,7ㄴㄷ,7ㄹ-9(◎ 7ㄹ과 8ㄴ)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제2독서 로마서 13,8-10

복음 환호송 2코린 5,19 참조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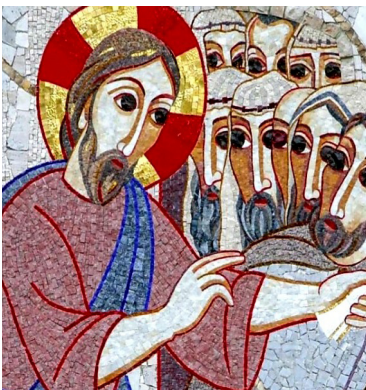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알렐루야.

복음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마태오 18,15-20

영성체송 시편 42(41),2-3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Q 왜 성당에서는 침묵해야 하나요?

A 침묵은 오해를 많이 받는 주제입니다. 침묵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뭔가 억압되고 강요받은 것, 할 말이 있는데 참는 것, 불편하고 숨 막힐 것 같은 것,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네가 떠드니까 말 못하잖아, 조용히 해, 불의를 보고 외면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침묵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태도입니다.

가톨릭 영성에서 말하는 ‘거룩한 침묵’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준비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침묵은 전인적인 행위입니다. 단순히 말과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정신의 고요함을 뜻합니다. 침묵은 영적인 충만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 침묵입니다. 하느님만으로 만족하기에, 하느님의 품안에서 온전히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에, 하느님의 면전에서 당신의 사랑을 말로 표현할 길이 없기에. 그것이 거룩한 침묵입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이며 자유를 주는 것이고 무엇보다 참 행복한 일입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당에서 조용히 하라고 해서 입을 꼭 다물자 이번에는 성가 왜 안 불러? 하고 야단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침묵을 단순히 수단으로 생각하면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참된 침묵은 찬양과 조화를 이룹니다. 침묵도 사랑의 표현이고 입을 열어 찬양 드리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성당 안에서 침묵하면서 그분의 현존을 느껴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품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시편 46,11)

(임성근 신부 / 우동성당 부주임 pantaleon@naver.com)

기 도 지 향

2026년 과달루페 성모님께 본당 공동체를 봉헌하는 기도지향

- 1) 하느님 말씀을 통한 영적성장을 위하여
- 2) 내면의 상처 치유와 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의 극복을 위하여
- 3) 겸손으로 서로 섬김을 위하여
- 4) 성사생활 참여를 어려워하는 신자들을 위하여
- 5) 예비신자 입교와 새 신자들을 환대하기 위하여

8월	묵주기도	성경읽기	평일미사	희생, 봉사, 자선
1주	1,265	7	9	6
2주	796	13	8	4
3주	710	13	7	7
4주	391	5	3	7
5주	705	10	4	10
합계	3,867	48	31	34

교황님 9월 지향 기도

<수자원 보호> 필수 자원인 물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 환영합니다

김인환 율리아노 신부님의 벤투라 본당 방문을 환영합니다.
머무시는 동안 뜻깊고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시길 기도드립니다.

2. 산타마리아 공소미사

- 일시 : 26년 9월 6일(주일) 16:00
- 장소 : 산타마리아 가정

3. 복되신 동정마리아 탄생 축일 봉헌 미사

- 일시 : 26년 9월 8일(화) 19:00
- 장소 : 성바실 성당(637 Kingsley Dr. LA, CA 90005)

4. 본당신부 휴무

- 일시 : 26년 9월 11일(금)
- 본당신부 휴무관계로 금요일 오전미사는 없습니다.
Cell 기도모임은 10:00에 있습니다.

5. ME - 부부동반 여행 (Marriage Encounter)

- 일시 : 9월 18일(금) - 20일(주일)
- 장소: Poverello Assisi Retreat Center
(1519 Woodworth St, San Fernando, CA 91340)
- 대상: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원하는 모든 부부
- 신청문의: 310-780-9055 남가주 ME 대표 (정동호 하상바오로)

6. 북가주 미션순례

8월 19일(수) - 22일(토)에 예정되었던 북가주 미션순례는 9월 30일(수) - 10월 3일(토)로 일정이 연기 되었습니다.

7. 과달루페 성지순례

- 일시 : 11월 16일(월)-19일(목)
- 장소 : 과달루페 성모성지 (멕시코 시티)
- 신청 : 인원 파악을 위해 앤디 대건 안드레아 사목회 서기님께 신청바랍니다.

8. 성경공부 그룹나눔

- 일시: 사순시기 부터 월 1회, 조별 시간에 맞춤
- 장소: 성당 or 조의 가정
- 조편성: 서로 시간이 맞는 인원 중심으로 2-5명

9.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 "셀"(Cell) 기도 모임 안내

- 매주 금 09:30 미사 후 "셀(Cell)"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10. 2026년 과달루페 성모님께 기도 봉헌

- 매주 게시판에 구역별로 기도를 집계하여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 미사 전이나 후에 바로 자석을 부착해 주시면 집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례안내

전례봉사자(독서) 안내

9월 6일 연중 제23주일	9월 13일 연중 제24주일
제1독서 : 정석건 대건안드레아 제2독서 : 하주영 프란치스코	제1독서 : 윤원희 대건안드레아 제2독서 : 이경숙 도미니카

재정소식

천주교 벤투라 성당 공동체는 본당 신자들의 아낌없는 봉헌에 의해 유지되고 성장합니다. 이웃 사랑 계명과 교회법이 요청하는 대로 자선과 희사를 순수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들의 정성				주일미사/ 평일미사		
	교무금	헌금	기부금/기타	합계	본당	공소	합계
8월 2일	\$450	\$400 공소 \$80		\$930	36		36
8월 9일	\$1,550	\$400		\$1,950	34		34
8월 16일	\$1,300	\$300 공소 \$40	\$1,100	\$2,740	29/13	2	31/13
8월 23일	\$1,250	\$320		\$1,570	30/4		30/4
8월 30일	\$1,250	\$350		\$1,600	32/4		32/4
합 계	\$5,800	\$1,890	\$1,100	\$8,790			

교무금 현황 김용진(11,12), 김광일(9), 이석만(7,8)